

‘20.3.2(月)

제20대 국회<4개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김도읍입니다.

<제20대 국회 4개년‘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법질서확립과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다보니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및 법치주의 파괴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비위 의혹을 비롯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국민께 알리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경제, 교육, 안전, 환경,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래통합당과 부산 국회의원 중 최다 법안발의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서부산을 동남권 경제, 교육, 문화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역 내 각종 공영시설 설립 및 인프라 구축, 국고 지원을 이끌어내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수상 역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지역 주민과 국민의 뜻으로 여기고,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국민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

국회의원 김도읍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제20대 국회를 정리하는 마지막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여 기쁩니다.

다른 선배·동료 의원님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보다 꾸준히 성실하게 활동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의정활동의 목표인 ‘늘 성실하게, 기본에 충실히’를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느라 고생하신 법률연맹 관계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계속 국회가 건강한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김민기

20. 02. 27.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 선정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4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 및 입법 감시 분야에서 29년의 전통을 가진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20대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우수 국회의원을 뜻하는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앞으로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달라는 무거운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대 국회는 탄핵정국을 관통하며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정치 개혁과 사법 개혁,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두루 챙겨야 함과 동시에, 청년의 미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모습을 눈여겨봐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제가 지난 4년간 관심을 갖고 지적한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제시한 정책대안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나가는 지에 대해 계속해서 꼼꼼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2016~2020)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구서구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대한민국 발전과 법치를 통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한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신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수상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저를 지지하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대구 서구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8년간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에 20대 국회를 매듭지어가는 현 시점에 제게 주신 금번 헌정대상은 서구 주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부끄럽지 않은 성적표로 보답한 것 같아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받은 이 상과 대구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는 자랑스러운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구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봉사자 및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루 속히 현 상황이 타개 되어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 소감문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먼저, 엄정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선정한 ‘제 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숨가쁘게 달려왔던 4년의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주신 모니터링단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합니다.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실력, 성실, 품격을 의정활동 3대 기조로 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을 단기간 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품격있는 언어사용으로 떨어진 국민들의 정치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 지난 2018년 한국 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선정한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연수갑의 국회의원이 되고 주민 여러분께 본회의에 절대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4년 내내 본회의 출석율을 100%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생활 변화에 도움을 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년 동안 전반기는 정무위, 후반기는 교육위로 활동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민심은 천심’임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정무위로 활동하면서 「외부감사법」 개정을 주도해 회계투명성 강화해 기여하는 등 민생에 기반한 입법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이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후반기 교육위로 활동 하면서는 「대안 교육에관한법률」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작년 6월 최초로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참 주권을 가진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해 나온 결론이 가장 위대하고 정확하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잘 담아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의정활동우수상) 수상소감문

송희경 의원

2017년부터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이라는 귀한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상은 제20대 국회 4개년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이기에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로 여기고 남은 임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파고 쇼크와 함께 문을 연 20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의 저성장·전통산업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이 절실했습니다. 20대 국회 내 ICT 업계 출신 국회의원은 제가 유일무이했지만 무력감을 가지기보다는 일당백을 해내겠다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의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답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국회 등원 직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을 만들어 4년간 융합산업 제도 개선과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아울러 국회 내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끌고 특위 내 간사를 도맡아 4차산업혁명의 성패를 좌우할 빅데이터3법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위치정보 규제 완화·클라우드산업 활성화·벤처민간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개선,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정책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 개선을 위한 추심제도 개선,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관리 감독 체계 강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근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성 가족 행복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 제도 개선에도 매진해왔습니다.

“내가 잘되면 회사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 30년간 산업현장에서 체득한 신념이자, 20대 국회의 첫발을 내딛을 때 가슴에 품었던 초심입니다. 초심을 가지고 4년 내내 우리나라의 산업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래먹거리 선점에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견을 좁히고 점점을 늘려 규제해소, 산업진흥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4년간의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과분한 평가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 인사드리며, 남은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제20대 국회 ‘국회헌정대상’ －

국회의원 오제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서원구 국회의원 오제세입니다.

20대 국회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대변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국민여러분의 칭찬임과 동시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말씀을 수행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2020년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양극화로 민생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 수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했습니다.

중부담-중복지를 통한 복지향상과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저출산·고령화 대책, 노인빈곤 문제 해소, 폭증하는 의료비 대책,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강화, 기초노령연금 인상, 장애인 차별 금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국가발전과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참여하고 계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도 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 4개년을 평가하는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20대 국회는 헌정 사상 초유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첫 발을 내딛은 이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결국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일을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간사를 맡은 정무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신용정보보호법, 청년기본법, 공정거래법 등 계류되어 있던 다수의 주요 민생 개혁법안들을 처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야당과의 끝없는 대화로 늘 얼굴을 마주하는 상임위에서만큼은 무작정 반대만을 외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견 수렴입니다. 오는 제21대 국회는 정쟁을 넘어서 민생 문제를 우선하는 협치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인정해 주시고,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다면 충분히 대한민국 국회도 제 몫을 다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큰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더 엄정한 평가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헌정대상 수상소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입니다.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유서 깊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법률연맹 총본부에서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되어 큰 영광입니다. 심사에 참여해주신 의정활동 평가단과 전문가 분들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상 선정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책과 입법의 중추인 국회에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도 그 과분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분서주로 필요한 정책·법안들을 제안하고 빈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 헌정대상에서 그 노력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과분한 상을 받게 된 것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따끔한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은 제20대 국회 의정활동을 비롯해, 앞으로도 더욱 건위수명한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부산진구을 출신 이현승 국회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19대 국회 헌정대상에 이어 제20대 국회 헌정대상도 수상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한결같이 헌정대상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등과 같은 운동을 통해 올바른 국회 위상 확립을 위해 애써주시는 법률연맹 관계자 여러분과, 항상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모니터링, 조사, 분석의 고생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입법기능을 수행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회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 역시 정무와 행정, 입법을 아우르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제19대·20대 재선국회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부당함을 개선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힘껏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각종 법안의 제·개정을 위한 노력과 국정감사 및 상임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과정에서 주어진 과분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처럼 영광된 상을 주신 법률연맹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현승

법률연맹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입니다.

우선, 제20대 국회 4개년 헌정대상 수상이란 영광을 안겨주신 법률연맹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작년에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신 데 이어 또 한 번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명예로운 수상을 안겨 주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연맹의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 금천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지난 4년간 구민들이 주신 표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천구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신안산선 착공과 종합병원 유치 등 굵직한 지역숙원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국회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역임하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전안법 전부개정’을 통과시켜 영세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주었습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중 잘못된 부분은 냉철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고, 법률연맹으로부터도 3년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지난 4년을 증명하는 오늘의 영광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기울인 진심과 노력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정해주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코 안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민생을 챙기고, 시대가 주는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참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념을 잃지 않고,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주어진 소명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를 포함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이 때,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점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법률연맹에 무한한 발전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원내수석부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장정숙입니다.

29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헌정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헌정대상은 20대 국회 전반의 의정활동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지난 4년간의 활동에 쏟은 열정과 노력을 높이 사주신 것 같아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에 첫 등원한 이래 전반기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 겸임 상임위원회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몸 담으며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네 차례의 국정감사와 예·결산, 각종 소위원회 활동 등을 치르며 국민의 삶 속에 스민 땀과 눈물, 한숨을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를 주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 문제를 지적한 한편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성화고 출신 청년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립대학이라는 강고한 사회 내의 겹겹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만하게 운영되는 복지재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정부 사업의 부실한 운영 행태를 질타한 동시에 직장 내 성차별이나 아이 맡길 곳이 없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보다 안전한 일터가 주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며,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제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헌정대상 선정에 참여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오직 민생에 집중해 의정활동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3.2.

국회의원 장 정 숙

소 감 문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먼저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의 안전과 경제가 모두 비상하고 엄중한 요즘입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 사투에 감사드리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전국의 각 분야 27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 20대 국회 <4개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20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12개의 객관적 항목으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어가는 지금 돌이켜보면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교육'과 '문화' 분야의 발전과 새로운 설계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맡겨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4개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니,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국회 코로나 19대책 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국회부의장 주승용

반갑습니다.

국회부의장 주승용입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 분야의 전문성과 영향력 등에서 국내 최대·전문시민단체로서,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기본책무이며 권리인 공정성 감시와 법·정치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평가기준을 토대로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 큰 상을 받게 되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대 국회 4년 종합평가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이유는 아마도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통과 실적과 법안표결 참여 부분 등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입법활동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자,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법안 발의건수에 치중하지 않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입법활동 그리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 임직원 여러분과 저를 ‘제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민생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0대 국회 4년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국회의원 1명, 그 이상의 몫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려 했습니다. 여성, 장애인, 저학력자들과 함께 하려 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국회를 선도하려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움직이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입법 분야에서 헌정사상 최대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기록(2020년 2월 29일 현재 186건 처리, 19대 국회 이전 처리건수 최다 147건)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의 50%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관련된 법안이었을 만큼, 황주홍의 의정활동은 농어업과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는 농어업 관련 법률과 예산과 정책 중에서 제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농어업의 최후 보루이자 ‘마지막 지킴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농해수 위원회는 여야 의원 1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8년간 처음부터 끝까지 농해수위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저 황주홍 한 사람 뿐입니다.

2018년 7월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원장으로 본회의에서 선출되었을 때 여야 선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했던 인사말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들의 친구이자 뒷배경, 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상임위,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민들 힘겹게 하는 상대적 가난과 싸워야지, 여야 의원들이 싸워서 안 됩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새지 않도록 집행부인 행정부를 격려하고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는 국회(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년 동

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파행 없이 원만하게 상임위 회의를 해왔습니다. 이는 '무능국회'에서도 빛난 1위는 '농해수위'라는 평가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법안처리율에 있어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희상 국회의장님은 지난해 7월 공개 석상에서 모범적이라면서 이례적으로 저와 농해수위에 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것도 많지만,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몇 가지 있어 꼽아봅니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상임위를 옮기지 않고, 줄곧 농어업 관련 농해수 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먹지 않는 묵은 쌀 (고미)을 굶어죽는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에 무상원조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저의 제안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외 무상 식량원조 협약(FAC)이 비준되었을 때 감동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특수 활동비(특활비)를 전면 폐지시켰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은 이를 매우 크게 칭찬해주셨는데 저 또한 매우 잘한 일로 꼽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기관들 모두가 특수 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오직 국회만 특수활동비를 2019년 전면 폐지했습니다. 저 황주홍 혼자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저 혼자 특수활동비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국회의 간부급 국회의원 25명에게 매월 현금으로 '눈먼 돈'을 지급해 온 것을 말합니다.) 문희상 현 국회의장의 말씀처럼 제가 없었으면, 국회 역시 특수 활동비를 전면 폐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특조법)을 통과시킨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뒤, 여야 동료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특조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보류(계류)되었던 이 법안을 다시 논의의 안전에 올려 통과시키는 매우 이례적인 과정이 있어서 더욱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키도 작습니다. 인물도 그저 그렇습니다. 머리에 탈모도 많이 진행되어 볼품이 별로입니다. 집안도 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진지하게 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상의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지는 정치가 최상의 정치'라는 믿음으로, 제 나름의 '황주홍식 양보 정치'를 묵묵히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싸우지 않고 일에 집중하는 대화의 정치, 협치의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4년간 헌정대상 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립니다.